

수시마경

(Susimasuttam., 상웃따니까야 S2.3.9, 전채성님역)

한때 세존께서 싸밧티의 제따바나에 있는 아나타뻬디까 승원에 계셨다. 그때 존자 아난다가 세존께서 계신 곳으로 찾아왔다. 가까이 다가와서 세존께 예배를 올리고 한쪽으로 물러앉았다. 세존께서는 한쪽으로 물러앉은 아난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세존] "아난다여, 그대는 싸리뻬따가 마음에 드는가?"

[아난다] "세존이시여, 어리석지 않고 악하지 않고 해매지 않고 어지럽지 않은 마음을 지닌 사람으로서 누가 참으로 싸리뻬따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겠습니까? 세존이시여, 존자 싸리뻬따는 현자입니다. 세존이시여, 존자 싸리뻬따는 커다란 지혜를 지니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존자 싸리뻬따는 넓은 지혜를 지니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존자 싸리뻬따는 명쾌한 지혜를 지니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존자 싸리뻬따는 빠른 지혜를 지니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존자 싸리뻬따는 예리한 지혜를 지니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존자 싸리뻬따는 꿰뚫어보는 지혜를 지니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존자 싸리뻬따는 욕심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존자 싸리뻬따는 만족을 압니다. 세존이시여, 존자 싸리뻬따는 홀로 지냅니다. 세존이시여, 존자 싸리뻬따는 교제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존자 싸리뻬따는 근면하고 부지럽합니다. 세존이시여, 존자 싸리뻬따는 설법자입니다. 세존이시여, 존자 싸리뻬따는 부드러운 말을 합니다. 세존이시여, 존자 싸리뻬따는 충고의 말을 합니다. 세존이시여, 존자 싸리뻬따는 악을 질책합니다. 세존이시여, 어리석지 않고 악하지 않고 해매지 않고 어지럽지 않은 마음을 지닌 사람으로서 누가 참으로 싸리뻬따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겠습니까?"

[세존] "아난다여, 참으로 그렇다. 아난다여, 참으로 그렇다. 어리석지 않고 악하지 않고 해매지 않고 어지럽지 않은 마음을 지닌 사람으로서 누가 참으로 싸리뻬따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겠는가? 아난다여, 존자 싸리뻬따는 현자이다. 아난다여, 존자 싸리뻬따는 커다란 지혜를 지니고 있다. 아난다여, 존자 싸리뻬따는 넓은 지혜를 지니고 있다. 아난다여, 존자 싸리뻬따는 명쾌한 지혜를 지니고 있다. 아난다여, 존자 싸리뻬따는 빠른 지혜를 지니고 있다. 아난다여, 존자 싸리뻬따는 예리한 지혜를 지니고 있다. 아난다여, 존자 싸리뻬따는 꿰뚫어보는 지혜를 지니고 있다. 아난다여, 존자 싸리뻬따는 욕심이 없다. 아난다여, 존자 싸리뻬따는 만족을 안다. 아난다여, 존자 싸리뻬따는 홀로 지낸다. 아난다여, 존자 싸리뻬따는 교제하지 않는다. 아난다여, 존자 싸리뻬따는 근면하고 부지런하다. 아난다여, 존자 싸리뻬따는 설법자이다. 아난다여, 존자 싸리뻬따는 부드러운 말을 한다. 아난다여, 존자 싸리뻬따는 충고의 말을 한다. 아난다여,

존자 짜리뻗따는 악을 질책한다. 아난다여, 어리석지 않고 악하지 않고 해매지 않고 어지럽지 않은 마음을 지닌 사람으로서 누가 참으로 짜리뻗따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겠는가?"

존자 짜리뻗따를 예찬할 때 마침 하늘아들 쭈씨마가 하늘아들의 무리에 둘러싸여 세존께서 계신 곳으로 찾아왔다. 가까이 다가와서 세존께 예배를 올리고 한쪽으로 물러섰다. 한쪽으로 물러서서 하늘아들 쭈씨마는 세존께 이와 같이 말했다.

[쭈씨마] "세존이시여, 참으로 그러합니다. 올바른 길로 잘 가신 이시여, 참으로 그러합니다. 어리석지 않고 악하지 않고 해매지 않고 어지럽지 않은 마음을 지닌 사람으로서 누가 참으로 짜리뻗따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겠습니까? 세존이시여, 존자 짜리뻗따는 현자입니다. 세존이시여, 존자 짜리뻗따는 커다란 지혜를 지니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존자 짜리뻗따는 넓은 지혜를 지니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존자 짜리뻗따는 명쾌한 지혜를 지니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존자 짜리뻗따는 빠른 지혜를 지니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존자 짜리뻗따는 예리한 지혜를 지니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존자 짜리뻗따는 꿰뚫어보는 지혜를 지니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존자 짜리뻗따는 욕심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존자 짜리뻗따는 만족을 압니다. 세존이시여, 존자 짜리뻗따는 홀로 지냅니다. 세존이시여, 존자 짜리뻗따는 교제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존자 짜리뻗따는 근면하고 부지런합니다. 세존이시여, 존자 짜리뻗따는 설법자입니다. 세존이시여, 존자 짜리뻗따는 부드러운 말을 합니다. 세존이시여, 존자 짜리뻗따는 충고의 말을 합니다. 세존이시여, 존자 짜리뻗따는 악을 질책합니다. 세존이시여, 이리석지 않고 악하지 않고 해매지 않고 어지럽지 않은 마음을 지닌 사람으로서 누가 참으로 짜리뻗따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겠습니까? 세존이시여, 저는 또한 어떠한 하늘아들의 무리에 다가가든지 모두로부터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말을 듣습니다.

'존자 짜리뻗따는 현자이다. 존자 짜리뻗따는 커다란 지혜를 지니고 있다. 존자 짜리뻗따는 넓은 지혜를 지니고 있다. 존자 짜리뻗따는 명쾌한 지혜를 지니고 있다. 존자 짜리뻗따는 빠른 지혜를 지니고 있다. 존자 짜리뻗따는 예리한 지혜를 지니고 있다. 존자 짜리뻗따는 꿰뚫어보는 지혜를 지니고 있다. 존자 짜리뻗따는 욕심이 없다. 존자 짜리뻗따는 만족을 안다. 존자 짜리뻗따는 홀로 지낸다. 존자 짜리뻗따는 교제하지 않는다. 존자 짜리뻗따는 근면하고 부지런하다. 존자 짜리뻗따는 설법자이다. 존자 짜리뻗따는 부드러운 말을 한다. 존자 짜리뻗따는 충고의 말을 한다. 존자 짜리뻗따는 악을 질책한다. 어리석지 않고 악하지 않고 해매지 않고 어지럽지 않은 마음을 지닌 사람으로서 누가 참으로 짜리뻗따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겠는가' 라고"

마침 존자 짜리뻗따에 대한 예찬을 말할 때 하늘아들 쭈씨마의 무리는 만족하고 기뻐하고 환희하며 찬란한 빛을 내었다. 마치 참으로 깨끗하고 순수하고 팔각형이며 잘 연마된 푸른 에머랄드 구슬이 황색의 모포 위에 던져져서 밝은 빛으로 반짝이는 것과 같이 존자 짜리뻗따에 대한 예찬을 말할 때 하늘아들 쭈씨마의 무리는 만족하고 기뻐하고 환희하며 찬란한 빛을 내었다.

마치 참으로 재주 있는 금세공사가 염부단금을 공들여 정련하여 만든 장식품이 황색의 모포 위에 던져져서 밝은 빛으로 반짝이는 것과 같이 존자 짜리뻏따에 대한 예찬을 말할 때 하늘아들 쑤씨마의 무리는 만족하고 기뻐하고 환희하며 찬란한 빛을 내었다.

마치 밤의 새벽녘에 샛별이 밝은 빛으로 반짝이는 것과 같이 존자 짜리뻏따에 대한 예찬을 말할 때 하늘아들 쑤씨마의 무리는 만족하고 기뻐하고 환희하며 찬란한 빛을 내었다.

마치 가을날 구름 한 점 없이 개었을 때 태양이 하늘을 밝히며 모든 허공의 어둠을 쳐부수고 밝은 빛으로 반짝이는 것과 같이 존자 짜리뻏따에 대한 예찬을 말할 때 하늘아들 쑤씨마의 무리는 만족하고 기뻐하고 환희하며 찬란한 빛을 내었다.

그때 하늘아들 쑤씨마가 존자 짜리뻏따에 관해서 세존의 앞에서 이와 같은 시를 읊었다.

[쑤씨마] "분노하지 않고 욕심이 없고 온화하고 길들여져서

스승의 예찬을 받을 만한 거룩한 이 짜리뻏따는 현자로 알려져 있네."

그때 세존께서 존자 짜리뻏따에 관해서 하늘아들 쑤씨마에게 이와 같은 시로 말씀하셨다.

[세존] "분노하지 않고 욕심이 없고 온화하고 길들여져서

잘 훈련된 고용인처럼 때를 기다리는 짜리뻏따는 현자로 알려져 있네."

註.

- 염부단금 : jambonada. 잠보 강가에서 나는 품질 좋은 금을 뜻한다.

- 잘 훈련된 고용인처럼 : 붓다고사에 의하면, 번뇌를 끊은 자는 여러 다른 시간에 열반에 들게 되므로 고용된 노동자가 자신의 임금을 기다리듯이 열반의 때를 기다리므로 고용인으로 표현한 것이다.

Suttantapiṭake

Samyuttanikāyo

Paṭhamo bhāgo

Sagāthavaggo

2. Devaputtasamyuttaṃ

3. Nānātitthiyavaggo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āsambuddhassa.

2. 3. 9.

Susīmasuttaṃ

110. Sāvattiyāṃ

Atha kho āyasmā ānando yena bhagavā tenupasaṅkamaṃ. Upasaṅkamtivā bhagavantaṃ abhivādetvā ekamantaṃ nisīdi. Ekamantaṃ nisinnaṃ kho āyasmantaṃ ānandaṃ bhagavā etadavoca: tuyhampi no ānanda sārīputto ruccatīti.

Kassa hi nāma bhante, abālassa aduṭṭhassa amūḷhassa avipallatthacittassa āyasmā sārīputto na ruceyya. Paṇḍito bhante, āyasmā sārīputto. Mahāpaṇḍo bhante, āyasmā sārīputto. Puthupaṇḍo bhante, āyasmā sārīputto. Hāsupaṇḍo bhante. Āyasmā sārīputto. Javanapaṇḍo bhante, āyasmā sārīputto. Tikkhapaṇḍo bhante. Āyasmā sārīputto. Nibbedhikapaṇḍo bhante, āyasmā sārīputto. Appiccho bhante, āyasmā sārīputto. Santuṭṭho bhante, āyasmā sārīputto. Pavivitto bhante, āyasmā sārīputto. Asaṃsaṭṭho bhante, āyasmā sārīputto. Āraddhaviriyo bhante, āyasmā sārīputto. Vattā bhante, āyasmā sārīputto. Vacanakkhamo bhante, āyasmā sārīputto. Codako bhante, āyasmā sārīputto. Pāpagarahī bhante, āyasmā sārīputto. Kassa hi nāma bhante, abālassa aduṭṭhassa amūḷhassa avipallatthacittassa āyasmā sārīputto na ruceyyāti.

[PTS Page 064. [\q 64/]] Evametaṃ ānanda, evametaṃ ānanda, kassa hi nāma ānanda, abālassa aduṭṭhassa amūḷhassa avipallatthacittassa sārīputto na ruceyya. Paṇḍito ānanda sārīputto, mahāpaṇḍo ānanda sārīputto, puthupaṇḍo ānanda sārīputto, hāsupaṇḍo ānanda sārīputto, javanapaṇḍo ānanda sārīputto, tikkhapaṇḍo ānanda sārīputto, nibbedhikapaṇḍo ānanda sārīputto, appiccho ānanda sārīputto, santuṭṭho ānanda sārīputto, pavivitto ānanda sārīputto, asaṃsaṭṭho ānanda sārīputto, āraddhaviriyo ānanda sārīputto, vattā ānanda sārīputto, vacanakkhamo ānanda sārīputto, codako ānanda sārīputto, pāpagarahī ānanda sārīputto. Kassa hi nāma ānanda ābalassa aduṭṭhassa amūḷhassa avipallatthacittassa sārīputto na ruceyyāti.

1. Hāsapaṇḍo machasaṃ, syā. Sīmu. [PTS] hāsupaṇḍāti paṭisambhidādisu ca saṃyutta aṭṭhakathāya ca dissate.

[BJT Page 124] [\x 124/]

Atha kho susīmo devaputto āyasmato sārīputtassa vaṇṇe bhaṅṅamāne mahatiyā devaputtaparīsāya parivuto yena bhagavā tenupasaṅkamaṃ. Upasaṅkamtivā bhagavantaṃ abhivādetvā ekamantaṃ aṭṭhāsi. Ekamantaṃ tṭhito kho susīmo devaputto bhagavantaṃ etadavoca: evametaṃ bhagavā. Evametaṃ sugata. Kassa hi nāma bhante, abālassa aduṭṭhassa amūḷhassa avipallatthacittassa āyasmā sārīputto na ruceyya? Paṇḍito bhante, āyasmā sārīputto, mahāpaṇḍo bhante, āyasmā sārīputto. Thupaṇḍo bhante, āyasmā sārīputto. Hāsupaṇḍo bhante. Āyasmā sārīputto. Javanapaṇḍo bhante, āyasmā sārīputto. Tikkhapaṇḍo bhante. Āyasmā sārīputto. Nibbedhikapaṇḍo bhante, āyasmā sārīputto. Appiccho bhante āyasmā sārīputto. Santuṭṭho bhante, āyasmā sārīputto. Pavivitto bhante, āyasmā sārīputto. Asaṃsaṭṭho bhante, āyasmā sārīputto. Āraddhaviriyo bhante, āyasmā sārīputto. Vattā bhante, āyasmā sārīputto. Vacanakkhamo bhante, āyasmā sārīputto. Codako bhante, āyasmā sārīputto. Pāpagarahī bhante, āyasmā sārīputto. Kassa hi nāma bhante, abālassa aduṭṭhassa amūḷhassa avipallatthacittassa āyasmā sārīputto na ruceyyāti.

Ahampīhi bhante, yaṅṅadeva devaputtaparīsāya upasaṅkamaṃ. Etadeva bahulaṃ saddaṃ suṇāmi: paṇḍito bhante āyasmā sārīputto. Mahāpaṇḍo bhante, āyasmā sārīputto. Puthupaṇḍo bhante, āyasmā sārīputto. Hāsupaṇḍo bhante. Āyasmā sārīputto.

Javanapañño bhante, āyasmā sārīputto. Tikkhapañño bhante, āyasmā sārīputto nibbedhikapañño bhante, āyasmā sārīputto. Appiccho bhante, āyasmā sārīputto. Santuṭṭho bhante, āyasmā sārīputto. Pavivitto bhante, āyasmā sārīputto. Asaṃsaṭṭho bhante, āyasmā sārīputto. Āraddhaviriyo bhante, āyasmā sārīputto. Vattā bhante, āyasmā sārīputto. Vacanakkhamo bhante, āyasmā sārīputto. Codako bhante, āyasmā sārīputto. Pāpagarahī bhante, āyasmā sārīputto. Kassa hi nāma bhante, abālassa aduṭṭhassa amūlhassa avipallatthacittassa āyasmā sārīputto na rucceyyāti.

Atha kho susīmassa devaputtassa devaputtaparisā āyasmato sārīputtassa vaṇṇe bhaññamāne attamanā pamuditā pītisomanassajātā uccāvacā vaṇṇanibhā upadaṃseti.

Seyyathāpi nāma maṇiveluriyo subho jātimā 2 aṭṭhaṃso suparikammakato paṇḍukambale nikkhitto bhāsate ca tapate ca virocati ca. Evamevaṃ susīmassa devaputtassa devaputtaparisā [PTS Page 065. [q 65/]] Āyasmato sārīputtassa vaṇṇe bhaññamāne attamanā pamuditā pītisomanassajātā uccāvacā vaṇṇanibhā upadaṃseti.

Seyyathāpi nāma nekkhaṃ³ jambonadaṃ dakkhakammāraputtena ukkā mukhe sukusala sampahaṭṭhaṃ⁴ paṇḍukambale nikkhitto bhāsate ca tapate ca virocati ca. Evamevaṃ susīmassa devaputtassa devaputtaparisā āyasmato sārīputtassa vaṇṇe bhaññamāne attamanā pamuditā pītisomanassajātā uccāvacā vaṇṇanibhā upadaṃseti.

Seyyathāpi nāma (saradasamaye viddhe vigatavalāhake deve)⁴ rattiyā paccūsasamayaṃ osadhītārakā bhāsate ca tapate ca virocati ca. Evamevaṃ susīmassa devaputtassa devaputtaparisā āyasmato sārīputtassa vaṇṇe bhaññamāne attamanā pamuditā pītisomanassajātā uccāvacā vaṇṇanibhā upadaṃseti.

Seyyathāpi nāma saradasamaye viddhe vigatavalāhake deve ādicco nabhaṃ abbhussukkamāno⁵ sabbaṃ akāsagataṃ tamaṃ⁶ abhivihacca bhāsate ca tapate ca virocati ca. Evamevaṃ susīmassa devaputtassa devaputtaparisā āyasmato sārīputtassa vaṇṇe bhaññamāne attamanā pamuditā pītisomanassajātā uccāvacā vaṇṇa nibhā upadaṃseti.

Atha kho susīmo devaputto āyasmantaṃ sārīputtaṃ ārabha bhagavato santike imaṃ gāthaṃ abhāsi:

1. Susīlamā machasaṃ, syā, [PTS] 2. Jotimā syā. 3. Nikkhaṃ machasaṃ. 4. (Lakkhaṇehi antarita) pāṭho sīhalapotthakesu ceva [PTS] Potthake ca na dissate 5. Abbhūssakkamāno machasaṃ. Sīmu, 2 6. Tamagataṃ machasaṃ, syā.

[BJT Page 126] [x 126/]

Paṇḍitoti samaññāto sārīputto akodhano,
Appiccho sorato danto satthuvaṇṇābhato¹ isīti.

Atha kho bhagavā āyasmantaṃ sārīputtaṃ ārabha susīmaṃ devaputtaṃ gāthāya
ajjhabhāsi:²

Paṇḍitoti samaññaṭo sārīputto akodhano,
Appiccho sorato danto kālaṃ kaṅkhati sudantoti³.

2. 3. 10

Sutta Pitaka
Samyutta Nikāya
Division I - Sagātha
Book 2 - Devaputta Saṃyutta
Chapter 2 - Nānātitthiyavaggo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āsambuddhassa.

2. 3. 9.

(29) Susimo - Susima the Son of the Gods

1. At Sāvatti.

2. Venerable Ānanda approached the Blessed One, worshipped and sat on side. Then the Blessed One said thus to venerable Ānanda:

“Ānanda, is Sāriputta pleased with you too?”

3. “Venerable sir, how could venerable Sāriputta be displeased with someone, who is not a fool, not corrupt, not erring and thinks in a constructive way? Venerable sir, venerable Sāriputta is very wise, has a wide understanding, is quick witted, has keen intelligence, has sharp and penetrating wisdom, has few desires, is satisfied, is secluded and without associations, with aroused effort, particular about his observances, speaks gently, exhorts reprovably, disapproves evil, so why should venerable Sāriputta be displeased with someone, who is not a fool, not corrupt, not erring and thinks in a constructive way.”

4. “Ānanda, you are right, how could Sāriputta be displeased with someone, who is not a fool, not corrupt, not erring and thinks in a constructive way? Ānanda, Sāriputta, is very wise, has a wide understanding, is quick witted, has keen intelligence, has sharp and penetrating

wisdom, has few desires, is satisfied, is secluded and without associations, with aroused effort, particular about his observances, speaks gently, exhorts reprovably, disapproves evil, so why should Sāriputta be displeased with someone, who is not a fool, not corrupt, not erring and thinks in a constructive way?"

5. Then Susima the son of the gods hearing the words, praising venerable Sāriputta accompanied by a large number of sons of gods, approached the Blessed One, worshipped and stood on a side.

6. Standing on a side, Susima the son of the gods said thus to the Blessed One:

"That is so, Blessed One! It's so, Well Gone One! How could venerable Sāriputta be displeased with someone, who is not a fool, not corrupt, not erring and thinks in a constructive way? Venerable sir, venerable Sāriputta is very wise, has a wide understanding, is quick witted, has keen intelligence, has sharp and penetrating wisdom, has few desires, is satisfied, is secluded and without associations, with aroused effort, is particular about his observances, speaks gently, exhorts reprovably, disapproves evil, so why should venerable Sāriputta be displeased with someone, who is not a fool, not corrupt, not erring and thinks in a constructive way?"

7. Then Susima, the son of the god's companions, the sons of gods, hearing the words of praise given to venerable Sāriputta were delighted and overjoyed and spoke high and low about venerable Sāriputta making their own manifestations of him.

8. Like the beryl gem with a good birth, cut on the eight sides, placed on an orange blanket would shine and give luster, in the same manner Susima, the son of the god's companions, the sons of gods hearing the words of praise given to venerable Sāriputta were delighted and overjoyed and spoke high and low about venerable Sāriputta making their own manifestations of him.

9. Like a golden ornament completed by a well accomplished expert goldsmith, placed on an orange blanket would shine and give luster, in the same manner Susima, the son of the god's companion gods, the sons of gods, hearing the words of praise given to venerable Sāriputta were delighted and overjoyed and spoke high and low about venerable Sāriputta making their own manifestations of him.

10. Like the morning star which shines resplendent in the sky in the last watch of the night, in the same manner Susima, the son of the god's companions, the sons of gods, hearing the words of praise given to venerable Sāriputta were delighted and overjoyed and spoke high and low about venerable Sāriputta making their own manifestations of him.

11. Like the sun in the Autumn, risen in a cloudless sky and dispelling all darkness would shine and burn, in the same manner Susima, the son of the god's companions the sons of gods, hearing the words of praise given to venerable Sāriputta were delighted and overjoyed and spoke high and low about venerable Sāriputta making their own manifestations of him.

12. Then Susima the son of the gods said this stanza in the presence of the Blessed One, about venerable Sāriputta:

“Sāriputta, considered as wise, is without anger,
With few desires, is gentle and tame, he is the sage praised by the Teacher.”

13. The Blessed One in reply to Susima the son of the gods said this stanza:

“Sāriputta, considered as wise, is without anger,
With few desires, is gentle and tame, he marks time attending carefully.”